다음 문장을 소리 내어 읽은 뒤 또박또박 베껴 써 보세요. 그리고 외워 보세요.

박준 · 송승언 · 오은 · 유희경, 『너의 시, 나의 책』

출처: arte

단어처럼 외로운 순간, 문장처럼 온전한 순간, 그리고 시처럼 가능한 순간이 당신에게 오늘 찾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.

존 오도나휴, 『사람이 사람에게』

출처: arte

당신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마다 그 축복은 다시 돌아와 당신을 포근히 감싸줄 것입니다.

백영옥, 『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』

출처: arte

엘리자가 말했어요!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.
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져요.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걸요!

오늘 읽은 신문 기사 중 마음에 드는 문장을 써 보세요.